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량

스리랑카 켈라니아대 객원교수, 한국현대소설 전공
julian@hanyang.ac.kr

- I. 머리말
- II. 한국학의 의미 영역
- III. 해외한국학과 현지화
- IV. '한중연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로 본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 V. 맺음말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INC-2230011).

I.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이하 ‘한중연씨앗형사업’/‘AKS SEED Project’)의 성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한국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지화 양상을 기술하고 평가 요소에 따라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해 먼저 그간 사용된 ‘한국학’의 의미영역을 고찰한 다음 개념적 단순화를 통해 사례 분석에 사용하는 기술과 평가의 전체를 마련하고(2장), 해외한국학의 핵심 가치로서 현지화 개념과 이를 위한 평가 요소를 제시하며(3장), 이를 바탕으로 ‘한중연씨앗형사업’ 성과사례에 나타나는 현지화의 양상과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4장). 논의 순서를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단순히 현황이나 실태를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피하고 우선 해외한국학의 본질을 탐색하고 장기적으로 지향할 가치체계를 구체화한 다음 그 안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몸담은 지역과 기관의 사정이 가장 특별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지역의 수만큼이나 다양해질 수 있는 사례 연구의 개별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일반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학 및 해외한국학의 개념이 보다 선명해지기를 바라며, 관련된 주체들(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 교육담당자)의 추후 활동이 일관된 방향성과 목표 아래 이루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한국학의 의미 영역

1. 한국학 개념의 단순화

국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¹⁾의 교육과 연구 및 확산을

1) 여기에서 ‘한국학’은 글자 그대로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위한 다양한 활동은 1990년대 이후 관련 기관의 설립과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힘입어 전환적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²⁾ 이를테면 이전까지는 외국에 소재하는 개별 대학이나 관심 있는 개인의 분산적 활동 영역이던 것이 국제교류재단(1992), 재외동포재단(1997), 한국국제협력단(1991) 등의 출범 이후에는 한국어와 한국학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팽창하면서 한국어/학은 문화교류의 직접 수단이자 정치경제적 이익이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듯하다.³⁾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외교 또는 공공외교의 구성요소가 된 한국어와 한국학은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외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예산과 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학문체계로서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요소를 품게 된 것도 사실이다.⁴⁾

한편으로, 한국학의 세계적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각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통합적 개념화의 노력은 미미하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한국학 또는 해외한국학에 관한 논의가 국내 일부 학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국외 지역으로는 주로 미주 학자들 (또는 영어권 학자들)의 담론으로 한정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여러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기관이 경쟁적으로 마련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들이 주로 단편적인 현황 소개에 그칠 뿐 한국학으로서 통합적 지향성을 마련하는 성과는 이루어내

2) 이혜경(1993: 9-17)에서는 해외한국학 성장 단계를 넷으로 나누면서 1980년대에 “한국학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 이주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한국학은 …… 크게 진흥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조직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면에서 1990년대를 주목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내 기관에 의한 해외한국학 현황 조사도 이루어졌다. 한국학술진흥재단(1990)의 『해외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수원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1990)의 『해외 한국학연구 현황』 등은 그 결과물이다.

3) 한류와 한국학의 관련에 대해서는 김동택(2006), 공공외교정책으로서 한국어교육에 관해서는 박경철(2013) 참고.

4) 지속성은 객원교수 파견이나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유무 또는 지속과 중단에 따른 부침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다양성은 언어, 문학, 문화, 역사 등의 영역별 다양성뿐 아니라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다채로운 관점이나 내용을 포괄하는 커리큘럼 등을 갖기 어려운 점을, 자율성은 객원교수나 사업비와 연관되어 현지 연구자들의 주제적 요구와 관점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가리킨다. 이들 문제요소는 이후 ‘현지화’ 개념을 논의할 때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지 못했다는 점이다.⁵⁾ 이들 두 요인의 결과로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국학'의 의미영역이 너무도 다채롭게 가지를 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학 또는 해외한국학에 관한 논의는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확대일로에 있고 그 미래적 필요성 또한 증대하는 외적 조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보편적인 학술체계로서 정체성 또한 구축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 지역별 한국학의 현황이나 특성을 통합된 한국학의 개념과 평가 요소에 따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그간의 해외한국학 논의는 특정 기관이나 교육 주체의 한국학 관련 활동 상황 소개나 특정 요소의 통계학적 집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⁶⁾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간의 축적된 성과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례 소개나 통계 중심의 보고가 관행이 되면 활동 자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활동의 내용이나 수준을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결과를 통합된 한국학의 개념과 평가 요소에 따라 기술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한국학의 의미영역을 분별해 보다 단순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외 각 지역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개인과 기관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된 한국학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과 단계별 필요조건을 명시한 실용적 지침으로 구성된 개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더라도 그것이 한국학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그간 한국학 담론의 대표적 생산자로는 조동일(1993, 2006), 한영우(1994), 김동백(2002, 2006), 박이문(2006), 윤여탁(2007), 박희병(2007) 등으로, 주로 한국어문학과 사학 분야에서 나타났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업단이 씨앗형사업 또는 중핵대학사업 참여자(기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국제한국학세미나"를 포함해 이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별 학술대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는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나 워크숍의 경우도 발표 내용 상당수는 "…… 지역(대학)의 한국학"과 같은 현황 소개들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행하는 <해외한국학백서>는 이러한 현황소개를 집대성한 자료라 하겠다.

개념화는 대체로 정의와 단계의 구분을 포함한다. 정의를 통해 특정 지역 또는 기관의 한국학이 그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어떤 점에서 부합하며 어떤 부분에서 특수한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계의 구분은 변화의 양상을 계측하고 활동의 지향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현재의 상황은 시간의 경과 안에서 정체, 성장 또는 쇠퇴의 역동성을 띠기이므로 한국학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운동의 경과를 파악하고 방향 잡이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침으로서 개념화는 과도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적 제안일 뿐 궁극적으로 한국학은 여타 학문체계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다양하며 인접 영역과도 혼종하는 운동 궤적을 따르게 될 것이다.

2. 한국학의 의미영역

여기에서는 국학, 한국학, 조선학, 고려학, 코리아학, 해외한국학, Korea(n) Studies, Koreanology 등으로 혼용되는 용어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각각의 개념 분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뿌리는 ‘본국학(구한말)-조선학(일제강점기)-국학(해방 후 60년대 이전까지)’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60년대 미국에서 지역 연구의 명칭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던 ‘한국학(60년대 미국의 지역학 개념 차용)’에서 찾을 수 있다.⁷⁾ 부분적으로는 1950년대 신문보도에 이미 나타나고 1960년대에는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용어의 유래를 달리 보는 것은 학문체계로서 관점이나 방법의 차이 또한 전제하는 것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국학과 한국학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둘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였다. 곧, 국학이 한국고유의 역사나 문화적 전통을 우리의 관점으로 연구해 민족 또는 국가적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면,⁹⁾ 한국학은 미국의

7) 김정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64집(2003), 129-165쪽.

8) 임형제, 「해의 한국학에 대한 접근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1권 2호(2014), 135-159쪽.

9) 임재해(1997: 4)에서는 “한국학은 세계 각 국학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화된 학문이라면 국학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주체의식의 학문”이라 설명한 바 있다. 김승환(2010: 291)에서 재인용.

영향 아래 도입된 지역 연구의 개념이면서 민족 또는 국가주의를 탈색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성(세계성 또는 보편성)이 강화된 한국에 관한 학문으로 상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며 국학이라는 용어는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유지될 뿐 한국에 관한 체계화된 지식 또는 한국에 관한 학문 체계를 가리킬 때는 한국학이 단일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⁰⁾

국학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한국학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한류 확산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 이후 한국학은 한국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외교적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지역이나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한국학의 세계화 또는 한국학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지식 체계로 인정받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국내외 인력이나 연구 활동을 가리키는 해외한국학이라는 표현 또한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국학은 많은 경우 해외한국학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로 조선학, 고려학, 코리아학들이 있다. 조선학은 일제강점기의 용어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이지만 당시 식민 지배에 대응해 민족의식을 고양하려 했던 의도까지 계승한 것은 아니다.¹¹⁾ 그보다는, 특히 일본에서 남북한을 포함하는 관점으로 현재까지 '조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려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 스스로 고려인이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학문에 주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그런가 하면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국제고려학회

10) 현재 국의 한국학 연구지원의 중추가 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을 사용하는 양상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하다. 1978년에 개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80년에 '한국학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이시기에 여러 대학에 설치되어있던 '국학연구소(원)'유의 기관들이 '한국학연구원'으로 개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국학'을 유지하는 기관도 있다.

11) 일본 천리대학의 『조선학보』 용례. 김승환(2010: 286) 참고.

12) 그런 점에서는 국내에서 국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에게 거주하는 국가는 러시아이지만 언어와 문화 공동체로 자신들을 주체화하는 방식으로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를 중심으로 남북한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한국학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¹³⁾ 여기서 한국학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이 제기된다. 바로 남북의 분단이 만들어낸 두 체제가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름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한국학은 남한학으로, 조선학은 북한학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다.¹⁴⁾ 고려학이나 코리아학이 사용되는 이유인 것이다.

한국학의 개념화에서 또 하나 고려할 요소는 서양어, 특히 영어로 이루어지는 상이한 표현이다. 이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휘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각 주체가 선호하는 지향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학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Korea(n) Studies와 Koreanology가 가장 널리 쓰인다. Korea(n) Studies는 사회학의 하위분류에 들어가는 지역학이자, 한반도와 그 주민들이 이루어낸 역사, 문화 등에 관한 부분적 지식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인문과학이나 복합학의 하위영역).¹⁵⁾ Koreanology는 여러 요소가 종합된 단일 학문체계를 상징한다. Korea(n) Studies가 한국에 관한 부분적 연구, 곧 한국 연구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도 Koreanology와의 차이를 보여준다(김승환, 2010: 289). 한국 연구는 학위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학위명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한국학에 대응하는 서양어 표현은 지향하는 수준이나 단계의 문제일 뿐 의미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다.

한국학을 한국에 관한 체계적 지식으로 범박하게 이해하면서 출발했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다양하게 변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관한 지식체계를 생산하는 학문 활동의 주체가 한국인이냐 외국인 이냐에 따른 차이가 가능하다. 주체에 따라 내용이나 방법, 태도가 달라지므로 그런 요소를 반영한 명칭이 필요할 수 있다. 예로, 국학/본국학은

1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가 2018년 7월 14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한 창립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따르면 한국학, 조선학을 지양하는 ‘코리아학’이 모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 그런데 ‘북한학’은 남쪽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연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상혁, 「한국학과 훈민정음」, 『우리어문연구』 35집(2009).

15) 김승환(2010)에서는 이 개념을 인문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복합학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하위유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Korea와 Korean을 구분해 전자는 지역학으로서 한국학(Korea Studies), 후자는 어문학 영역을 좀 더 강조하는 한국학(Korean Studies)으로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한국학을 연구할 때 가져야 할 태도 또는 방법의 한 특성(특정적 국면)을 강조한 명명으로 볼 수 있다. 학문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해외한국학은 한국인의 위치에서 ‘국외’를 명명에 반영한 것인데, 학문 활동의 주체가 외국인인가 여부보다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이다. 둘째는 ‘지식 체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른 변이도 있다. 한국에 관한 다양한 개별 연구 영역을 모두 한국학이라 볼 수도 있고 제도화한 하나의 단일 학문 체계를 한국학이라 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이다.¹⁶⁾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학 개념으로서 한국학은 한국에 관한 개별 연구이면서 한국학으로 명명되는 사례이다. 반면 유럽의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에 관한 통합적 지식체계를 전제하고 한국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한국어를 한국학과 구분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한국’이 가리키는 국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른 논란도 있다. 북한에 관한 연구를 특별히 북한학이라 할 것인지 한국학의 일부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남한을 가리키므로 북한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 둘이 통합되는 상황을 명칭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조선학이나 고려학, 코리아학은 이런 혼란을 피하려는 맥락에서 나온 명명법의 결과이다.¹⁷⁾

III. 해외한국학과 현지화

1. 한국학의 객체화와 해외한국학

한국학의 의미를 둘러싼 여러 용법과 원칙은 제각기 타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지역성을 통해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16) 백영서(2009: 3)에서는 총체적 통합학문으로서 한국학이 가야할 길을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란 장소를 중시하면서도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중의 과제를 감당하는 학문의 길”이라 표현하였다.

17) 최근 남북한의 평화 구축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해외한국학에서의 ‘동일한국학’이 곧 현안이 될 법하다. 여기에서도 명명보다는 범주와 내용 등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탐색한다는 점을 ‘한국학’이라는 용어 사용의 출발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성과 보편성은 주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객체를 전제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이 객체로 사유되는 상황을 인정하는 표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객체화된 한국학의 전형적 표현으로서 해외한국학에 관해 논의하겠다.

먼저, 앞에서 살핀 한국학의 의미 영역과 관련해, 국학 또는 본국학이라는 용어는 연구 주체의 국적, 연구 수행 장소, 주체의 태도 등과 관련해 특정한 의미적 경향성을 띠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¹⁸⁾ 다음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와 교육의 수행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남한 학자들의 학술 이론이나 관점에 주로 근거하며, 현재 남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텍스트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선학, 고려학, 코리아학 등의 개념화도 불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지역의 언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연구나 교육은 필요에 따라 역량이 있는 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적 조건에서는 한국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나의 주제 또는 영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맥락의 한국학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Korean Studies가 적절할 것이다. 통합된 지식 체계이자 제도화된 학문 영역으로서 Koreanology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대상이나 구성, 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통시적으로도 완성된 형태로 제시된 바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Koreanology는 하나의 이상으로 오랜 기간 추구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띠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학의 용어와 개념이 복잡성을 띠게 되는 것은 세계화 또는 국제화의 지향성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국학은 전형적으로 세계화 담론 안에 놓여있다. 이 담론을 단순화하자면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민족 공동체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인 바 이를 연구 교육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고 이를 세계화하는 것은 국가 간 경쟁체제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고히 하고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담론은 주체성과 객체성이 상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 한계가

18) 김승환(2010: 296-296)에서는 “국학은 그 어휘 자체가 주관적이고 배타적이다. 어휘에 내재하는 주관성으로 인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하더라도 강력한 국가주의(國家主義)에 의미를 둘 경우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뚜렷한 개념이다. 한국인이 아닌 연구자들에게 한국은 타자로 간주되며, 한국에 관한 지식의 추구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의 세계화가 결국 지역성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얻는 데 목표가 있다면 세계화보다는 보편화가 중립적이다. 아울러 보편화의 측면에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한국학의 객체화이다. 한국학의 객체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해외한국학’을 한국학을 객체화한 표현으로 재맥락화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해외’는 한국학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나 수행하는 장소에 따른 표현이 아니다. 이는 한국을 타자로 보는 시선을 통합적으로 가리킨다. 한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이자 지식이 해외한국학이다. 이처럼 단순히 ‘해외’를 덧붙이는 것으로 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한국학의 뜻으로도 이해하는 경우와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해외한국학은 가능하며, 한국인에 의한 해외한국학도 가능하다.¹⁹⁾ 이렇게 본다면 해외한국학이란 한국학이 국학으로서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타자로서 자유로이 사유되어 기존 지식의 재해석과 변용,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생성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학문적 실천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²⁰⁾

2.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본고에서 개념화하는 해외한국학은 한국학의 객체성(타자화)을 강조하므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걸맞은 자생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자생체계란 한국학 교육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관련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는 일체화된 순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한국학 지식에 대한 수요가 있고 수요에 맞는 수준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공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지식과 인력의 수요 공급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생체계 안에서는 이러한

19) 이와 관련해 김승환(2010: 298)에서는 “한국인은 한국학을 주체적으로도 보고 또 객체적으로도 보는 데 반하여 서구인들은 객체적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주체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피력하였다.

20) 이렇게 보아 본고에서 ‘한국학’ 개념의 변화는 한국학(국학) → 한국학(지역학) → 해외한국학(현지화)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순환이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간이란 적어도 한 세대를 넘기는 것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은 지식의 질적 혁신이 내부에서 일어나 점차 고도화되고 인류의 보편적 지식 체계와 이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자생체계는 다르게는 현지화라 표현할 수도 있다. ‘현지화’는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로 시작되었는데²¹⁾, 한국학 영역에서는 ‘한국어 현지화 교재’처럼 사용되어 “기개발된 범용 교재를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한 교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외한국학의 현지화를 교재 번역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부족한 감이 있다. 기업 경영에서 말하는 ‘마찰’을 한국학 교육이나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목표 시장 환경에 맞추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자생체계를 갖추는 것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해외한국학에서 현지화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지역 환경에 맞추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학의 현지화는 세계화 논리와 비교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조된다.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나 기업 진출과 같은 경제 요인이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나 지역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지역의 교육제도 안에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²²⁾ 곧,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가 지역의 교육 제도 안에 녹아들어 지식 생산과 유통의 과정이 자생체계를 이루어 지속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곧 현지화 과정이 된다.

해외한국학이 지역의 교육제도 안에서 지속되는 학문체계로서 정착했는가를 판단할 조건으로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을 제시하고자 한다.²³⁾

21)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활동을 목표 시장의 환경에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경규(2012) 참고.

22) 해외한국어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교육제도의 연관에 관해서는 줄고 「스리랑카 학교 한국어 교육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 『한민족문화연구』 57권(2017) 참고.

23) 아래에서 제시하는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의 개념과 각각의 하위 요소들은 관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축적된 해외한국학의 성과를 기술하고

다양성은 해외한국학의 양적 측면을 말한다. 여러 형태의 한국학 교육과정(학위 과정, 인증 과정, 교양 과정, 세미나 등)을 포함해 한국 문화행사, 한국학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개설 또는 수행, 한국학센터 또는 연구원의 개설, 교강사 인원 증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성과 평가에는 한국학 교과목의 개설 또는 증설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많은 사업 수행 기관들이 학술대회 개최나 한국학센터 개설 등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기타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²⁴⁾ 이에 따라 다양성은 해외한국학의 현지화에서 첫 단계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러나 현지화의 관점에서 다양성은 언어, 문학, 문화, 역사 등 교과목 수의 증가뿐 아니라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다채로운 관점이나 내용을 포괄하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목의 유형이나 수량을 판단할 수 있다.

자율성은 교사와 교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다양성으로 확대된 양적 국면이 교사와 교재를 통해 뒷받침될 때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나 전문 연구자의 존재 여부, 이들의 전문성이나 역량, 연구 결과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이나 역량은 교사나 연구자들이 한국어 또는 자국어로 한국에 관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전문성이나 역량의 방향성이다. 이는 현지의 역사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려는 시도이다.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수행 기관들은 사업 추진의 주체가 한국인 전문가인 경우와 현지인 전문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 사례도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 차이의 핵심이 바로 방향성, 곧 지역의 역사나 사회 특성이 반영되었는가의 여부이다. 한국인 전문가가 사업 전반을 강하게 주도하는 경우 현지의 요구나 관점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성립한다. 이는 지역에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제도로 정착되기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시험적 관점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며 추후 비판과 제안을 거쳐 보다 성숙한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4)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소개하는 씨앗형사업 '지원과제목록'에 따르면 2009년 8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모두 116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과제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볼 때 센터나 연구소 설립이 15개, 학부와 대학원 포함한 과정 및 과목 개설이 17개, 한국학과 또는 부서 설립이 2개 과제에 제시되어 있다.

까지 현지 교사나 연구자들의 주체적 요구와 관점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도 자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중수나 현지어 교과서의 유무, 기술된 내용이나 수준 등이 중요하다.²⁵⁾ 교과서는 판단하기 미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의 일으킬 만한 논점도 포함할 수 있다. 가령 러시아 지역 사례에 따르면 러시아 교과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²⁶⁾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한국 특히 남한의 기준에 따르는 역사 기술이나 사건 명칭을 관철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지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할 여지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가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 자율성은 양적 증대에 이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현지화의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지속성은 표면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제도로 정착하기 전까지 인위적인 지원이 지속의 주요 동력이 되는 단계이다. 지원은 주로 한국 정부 또는 유관 기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가리킨다. ‘한중연씨앗형사업’을 포함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강사 지원,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나 기관의 장학금 또는 현물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수행 기관은 대개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학과, 연구소 등을 개설하는 단계를 보인다. 두 번째는 한국학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도 지원은 유지될 수 있으나 공여의 형태가 아니라 기관 자체의 발전 계획(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등)이나 사업 구상(기관의 장학제도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치되며, 그 원천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연구비나 인력의 지원이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역에서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인위적 지원의 유무 또는 지속과 중단에 따라 해외한국학의 부침도 크다.²⁷⁾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과정은 필연적

25) ‘한중연씨앗형사업’ 전체 지원 대상 116개 가운데 교과서/ 교재 개발이 포함된 과제는 20개이다.

26) V. V. Khrenov, I. A. Musinova, Sungjae Lim, 『Actual issues of teaching Korean history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제6회 국제한국학 세미나』(2018), 61-65쪽. 이 논문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는 체코의 경우 ‘광주민중화운동’과 같은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현지어 명칭이 제 각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7) 이것은 정부의 공여 형태로 시작되는 해외한국학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으로 지속성의 두 번째 단계를 최종 목표로 삼게 된다.

IV. ‘한중연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로 본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해외한국학은 한국을 타자화함으로써 한국에 관한 기존 지식을 재해석하고 변용하며, 지역과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독창적 관점을 수용해 전에 없던 지식 생산을 추구하는 학문적 실천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한국학의 개별 사례를 이해하고 그 진행의 단계를 평가해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해외한국학의 개별 사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수행 기관들이다.²⁸⁾ 대상 기관 선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두 차례(2015, 2018) 진행한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포럼(세미나) 자료에 나타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 개최한 한국학 학술대회 자료(기타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했다.²⁹⁾ 두 번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포럼(세미나)에 참여한 기관은 모두 35개이나 중복과 사업 미수행 기관을 제외하면 33개가 되며, ‘한중연씨앗형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이들 자료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은 세 번의 기타 행사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분석 대상 기관의 사례는 지역과 국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은 2007년 출범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수행하는 ‘글로벌한국학사업’ 네 개 사업군의 하나이다. 예산 총액은 넷 중 세 번째, 2018년 신규예산은 두 번째 규모이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한국학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 기관이 해당 지역 또는 기관에 한국학 교육, 연구, 확산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29)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자료를 참고할 것. 『2015 AKS Korean Studies Forum』(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4. 1-3.),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10. 3-5.), 『2016 동남아시아 한국어교육자 현지 워크숍』(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1. 25-26.), 『제6회 국제한국학 세미나』(카잔연방대학교, 2018. 6. 25-27.), 『제14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6. 7. 25-30.).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³⁰⁾ 이들이 마주하는 문제나 장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현지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공통점도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점이 바로 해외한국학의 현지화의 양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1. 다양성: 교육과정과 교과목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사례들은 다양성 부문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다. 분석 대상 33개 기관 거의 모두가 교육과정(학부+석사) 개설, 교과목 개설, 학과설립, 한국학센터(연구소/연구원) 설립, 학술대회 개최 등을 성과로 제시하였다. 일부 기관이 위의 다양성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적 연구 주제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³¹⁾ 표면적으로 양적 증대가 눈에 띄지만 내용이나 관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캘러니아대학교(2015)의 경우 특별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되었지만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부족하다.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반학사학위(3년) 신규 교육과정은 문법,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문화 등 언어교육의 영역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 문학, 역사, 예술, 사회 등의 한국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언어 능력 개발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학기에 시작한 특별학사학위(4년) 교육과정은 일반학위 과정의 언어 교육에 더해 문학, 역사, 사회문화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교사 인력 구성, 교재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기 어렵다.³²⁾

이와 비슷한 현상을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2017)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에 제시된 한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 가운데 전공필수는 기능 네 영역과 문법 영역을 기본으로 6학기까지 수준을 높여가며 제공한다.

30) 성과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① 교재/자료 개발(20개 지역); ②센터/연구소 설립(15개 지역); ③교육과정(학부/대학원) 설치(13개 지역); ④ 교과목 개설(4개 지역); ⑤학과/부서 설치(2개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의 성과 거의 모든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31) UC리버사이드(2014), 퀸즐랜드대학교(2014), 아시아태평양대학교(2013), 말라야대학교(2013), 웨이팡대학교(2017) 정도의 기관이 포함된다.

32) 세부 교육과정 소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함. 캘러니아대학교 현대언어학과 홈페이지를 볼 것.

7학기에는 전공선택을 이수하는데 문학계열 6과목, 언어학계열 6과목이 설치되어 있다.³³⁾ 이들 전공선택에 배치된 과목명은 한국 대학의 국문학 또는 국어학 교육과정으로서도 손색없어 보이지만 자료에 언급되고 있듯 “우수 교수 충원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2)”는 상황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할 만한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다양성의 평가 요소 가운데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확대는 교사나 교재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 또한 스리랑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15년부터 중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시작하였다. 해외한국학의 지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실제 운영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개발된 교수요목과 교재가 교육 현장의 교육 상황과 부응하지 않는 점이 있다.³⁴⁾

알파라비카자흐국립대학교(2017)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설 이외의 한국학 관련 활동을 통한 다양성 확대 사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원(장학금,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학과발전기금 등), 학술 및 교육 활동, 문화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활동의 명칭이나 형태는 훨씬 다양하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79-89).³⁵⁾ 이와 같은 재정 지원 또는 활동이 지역 내에서 한국학 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기관 스스로 다양성 확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점은 흥미롭다.³⁶⁾ 실제 카자흐스탄에는 10여 곳이 넘는 기관이 한국어 또는 한국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92), 카자흐국립대학교 외에 카자흐국제관계

33) 전공선택과목은 한국명작감상, 한국문학연구, 한국시, 한국산문, 한국드라마, 한국문학사, 문법론, 한국어정서법, 15세기한국어이해, 의미론, 한국어사, 어휘론 등 12과목이다.

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6: 107-110) 참고. 2018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이 자료에 지적된 문제들은 곧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중등학교에 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단원을 배치해 현지 교사들과 함께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교재 개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사업이 시작단계에 들어갔다.

35) 자료에 소개된 활동은 2015년 이후 내역이 중심이다.

36)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 한국학 분야가 적지 않은 시간을 거쳐왔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야별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오고 있다는 …… 여전히 언어(한국어) 분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나 한국역사 등이 한국학의 중요한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92)

및세계언어대학교와 나자르바예프대학교가 ‘한중연씨앗형사업’을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해외한국학의 현지화에 필요한 다양성은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설만으로 단순히 평가하기 어렵다. 학술대회나 문화 행사 또한 다양성 확대의 직접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문가(또는 교사)나 교재(특히 현지어로 된)와 결합되어야 일회적 사건 또는 최초의 소개 수준을 벗어나 자율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 자율성: 교사와 교재

자율성은 연구자들이나 교사, 교재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사나 전문 연구자의 존재 여부, 이들의 전문성이나 역량, 연구 결과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구자나 교사, 학생의 평가 요소로 흔히 역량(capability)을 사용하는데, 해외한국학의 자율성이라는 의미로는 한국어나 자국어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자나 교사의 역량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지식 생산의 결과가 교재 또는 연구 논문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율성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지식 또는 연구의 성과들이 현지의 역사, 사회적 배경과 현지인 교사 및 연구자들의 요구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지어로 된 언어 교재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수행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어려움은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양성 영역에서 논의했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대가 무작정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며, 설혹 외형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본연의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례는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켈라니아대학교(2015) 사례에서 대학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어/학의 교사는 객원교수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그리고 현지인 강사들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52-53). 이들 중 문화, 역사, 사회 등 언어 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비전공자 현지인 강사인데,³⁷⁾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언어 이외의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현지어 또는 매개어(영어) 능력이 필요하

므로 한국인 교사가 담당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자국어로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내용과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잘 만들어진 교재이다. 결국 교사와 교재는 이렇게 상호 연결된다.

유사한 사례는 칠레센트럴대학교(2017)에서도 나타난다.

…… 본교는 2명의 전임교수가 한국인이고 한국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여서 상대적으로 여러 과목에 대한 강의가 가능하지만, 경제와 국제관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강사진 부족을 겪고 있다. 현재 경제분야는 방문 교수가 맡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

한국인 교수진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스페인어 실력은 원어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강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강의실 안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이끌어 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하는 데도 최소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보니, 선정 및 섭외 과정에서 언어 제약이 많다.

수업 준비와 강의에 필요한 전문 서적 역시 언어 장벽에 부딪힌다 …… 한국어로 된 한국학 관련 자료가 많지만,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하지 못한 채 영어 등 외국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158-159)

‘한중연씨앗형사업’ 수행 기관들의 사업 목표 또는 성과 가운데 교재 또는 교육 자료 개발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점에서는 현지어로 된 교재 또는 교육 자료 개발이 교사 확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사업일 수 있다. 아울러 한국학의 교육 및 연구 역사가 축적되어 관점이나 수준을 차치하고 현지어로 된 교재와 자료가 다수 생산되어 있는 지역은 현지화의 단계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 같은 지역이 그런 사례이다. 러시아는 고려인 이주 역사가 있고 한국과의 관계 역사 또한 긴 것에 비해 ‘한중연씨앗형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카잔연방대학교뿐이다.³⁷⁾ 그런데 카잔연방대학교에는 한국어문, 한국경제, 한국역사가 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 총 7개 학과 또는 전공 계열에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37) 해당 강사는 2014년에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주로 초급 언어 과목과 함께 문화, 역사, 사회 등 관련 과목을 담당한다.

38) 물론 러시아어권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

다.³⁹⁾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충분히 개발된 영어 자료와 다양한 경로로 지역 교육제도에 편입된 교사 및 연구자들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 지역의 사업 수행 기관들은 다양성의 확대보다는 독창적인 개별 주제로 과제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주목할 수 있다.⁴⁰⁾ 필리핀의 아시아태평양대학교(2013)는 선거제도, SNS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2012/ 2016)는 교육과정과 기관 개설에 이어 외교, 사회경제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교재 또는 자료 발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은 동남아시아이면서 영어 사용이 보편적인 점이 다양성의 확대에 앞서 또는 동시적으로 자율성의 추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만하다.

중국의 사례는 교사 또는 연구자 구성에서 현지인의 역량이 두드러지면서 연구 성과 또는 방향성에 현지의 정체성이 뚜렷이 반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하북대학교(2017)는 10명의 한국학 전공교수 가운데 8명이 현지인, 2명이 한국인이며, 현지인 중 박사학위 취득자가 3명, 수료자가 3명이다.⁴¹⁾ 길림대학교주해캠퍼스(2016)는 14명의 교수진 가운데 7명이 현지인이며 석사 넷, 박사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²⁾ 이러한 교사/연구자의 역량은 연구 활동의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웨이팡대학교(2017)는 연행록 연구를 중국 내 한국학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문헌 연구를 넘어 양국의 민속, 문화교류사 및 문화콘텐츠의 영역으로 확대해나가는 시도를 보인다.⁴³⁾ 화동사범대학교(2014)는 한중 양국의 한자 사용 전통에 착안해 한국 한자 연구 과정 개설과 한국 한자 전문가 양성, 한국 한자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⁴⁾

자율성은 결국 한국인에 의한 해외한국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아울러 해외한국학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틀 안에서 기획된 국학 또는 조선학의 개념과도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39) 이들 전공과에서 제공하는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경제 과목은 각각 역사학, 문화학, 경제학을 전공한 현지인 교원들이 담당한다. 문학 과목 일부 또한 동아시아문학 전공자가 강의한다. 수준 또는 한국의 해당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현지화가 진행된 결과라 하겠다.

40) 앞서 언급한 UC리버사이드(2014), 퀸즐랜드대학교(2014)와 2010년까지 중핵대학사업을 수행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과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106-117)

42) 카잔연방대학교(2018: 86)

43) 한국학중앙연구원(2018: 118-145)

44) 한국학중앙연구원(2015: 127-142)

3. 지속성: 지원과 제도화

지속성은 표면적으로 한국학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로 정착하기 전까지 인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쳐 돌이킬 수 없는 제도화를 지향한다. 지속성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영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유럽 언어나 철학, 역사 영역이 점차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한국학 또한 어떤 지역 또는 기관에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사라지는 부침의 과정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지속성은 결국 과종과 보육의 단계 이후에 도래할 경쟁의 단계이며, 이 과정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는 각자의 전략적 선택과 실행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제도화 여부이다. '한중연씨앗형사업'의 수행 기관은 한국학센터를 사업 목표로 제시하고 많은 경우 설립에 성공한다. 그런데 이런 센터나 연구소가 사업 종료와 함께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소속 기관에서 인증한 설립 증명(설립의 근거를 포함), 센터나 연구소의 자체 정관 또는 규정, 상시적인 인적 구성과 공간 같은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의 경우라면 수시 개편이 가능한 특강이나 세미나, 교양 강좌가 아니라 교칙에 따라 일정한 개편 주기를 갖는 정규과정인지가 제도화의 지표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제도화에서 이상적인 상황은 대학교가 아니라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학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중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교육은 교사와 교재, 교수요목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위의 교육과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한국학이 동시에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갖춘다면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⁴⁵⁾

45) 최근의 사례로는 한국어가 대학입시 교과목으로 포함된 태국(2016), 고등학교 입시 교과목으로 포함된 스리랑카(2015), 고등학교 제2외국어 시범교육을 시작한 베트남(2016)이 있다(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6: 97-10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23-129). 이외에 교민이 많고 한국학의 역사가 오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일찍이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다(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6: 78-81).

해외한국학의 현지화가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자면 자생 또는 자립의 구조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지원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현지의 장학 제도와 연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자격을 갖추며, 연구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방안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해외한국학의 현지화를 주제로 한국학의 개념화에 필요한 의미 탐색, 해외한국학의 의미 규정,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개념과 이를 위한 평가 요소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여러 양상과 성과, 전망에 관해 일관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학의 의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러 시기와 관점에 따라 사용되는 한국학 개념을 살핀 다음 국학/본국학 개념을 배제하고 조선학/고려학/코리아학 등의 유사 용어 사용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였다.

다음,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국학 개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해외한국학 개념을 재규정하였다. 여기서 해외는 단순히 장소나 연구자의 국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한국학의 객체화가 본질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한국학은 한국학을 객체화(타자화)함으로써 기존 지식의 재해석과 변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문적 실천으로 재의미화하였다.

또, 해외한국학의 다양한 양상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지화'를 제시하였다. 현지화는 해외한국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교육제도 안에 지속가능한 학문 활동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 개념은 국학→지역학→해외한국학(현지화)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연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학의 현지화 양상을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 범주를 활용해 기술하였다. 그 결과

다양성의 요소로는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설이 중요한 지표이며, 자율성의 요소는 교사와 교재가 핵심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위적 지원을 활용하되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한국학의 정체성과 구체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장기적 연구의 흐름 안에 포함되지만 결론 또는 결론에 근접한 종합적 논의는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거친 다음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논의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한국학의 교육과 연구 양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유관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이 각자의 기관에 맞는 장기적 현지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발표자료집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동남아시아 한국어교육자 현지 워크숍: 동남아시아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기능 교육과 평가』. 쿠알라룸푸르: 말라야국립대학교, 2016.
- 박희병, 『통합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춘천: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세미나 자료, 2007.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제14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문화의 세기,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밝힌다』. 서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16.
- 카잔연방대학교, 『제6회 한국학 세미나: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 카잔: 카잔연방대학교, 2018.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AKS Korean Studies Forum: Development of Cooperative Strategies for Global Korean Studies through a Korean Studies Seed Program Forum』. Siem Reap.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국제세미나』. 알마티: 카자흐국립대학교, 2018.

2. 단행본

- 김정숙,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윤여탁,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 임재해,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안동대학교출판부, 1997.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3. 논문

-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통권 64집, 2003, 129-165쪽.
- 김동택,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을 향하여」. 『역사비평』 61호, 2002, 375-401쪽.
- 김미영, 「우즈베키스탄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승환, 「한국학의 갈래와 개념」. 『배달말』 47권, 2010, 291쪽.
- 김왕배, 「은둔의 왕국: 한국학의 맹아와 선구자들」.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3호, 1999, 5-28쪽.
- 김진량, 「스리랑카 학교 한국어 교육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 『한민족문화연구』 57권, 2017, 381-408쪽.
- 박경철, 「공공외교로서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규 교육과정을

-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박이문,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의 개념과 방법론 및 지표」. 『동아시아문화연구』 40권.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5-15쪽.
- 백영서,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 『동방학지』 제14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1-25쪽.
- 이상혁, 「한국학과 훈민정음」. 『우리어문연구』 35집, 2009, 221-246쪽.
- 이혜경,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구미에서의 한국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형재, 「해외 한국학에 대한 접근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1권 2호, 2014, 135-160쪽.
- 정서영,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제3호, 2015, 145-182쪽.
- 최경규, 『다국적기업 한국 사회사의 현지화전략과 무형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한영우, 「한국학의 개념과 분야」. 『한국학연구』 1집, 단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1-24쪽.
- 현덕,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마케팅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의 성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한국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지화 양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여러 양상과 성과, 전망에 관해 일관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학의 의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러 시기와 관점에 따라 사용되는 한국학 개념을 살핀 다음 국학/본국학 개념은 배제할 수 있고 조선학/고려학/코리아학 등의 유사 용어 사용 또한 필요하지 않음을 보였다.

다음,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국학 개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해외한국학 개념을 재규정하였다. 여기서 해외는 단순히 장소나 연구자의 국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한국학의 객체화가 본질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한국학은 한국학을 객체화(타자화)함으로써 기존 지식의 재해석과 변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문적 실천으로 재의미화 하였다.

또, 해외한국학의 다양한 양상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지화’를 제시하였다. 현지화는 해외한국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교육제도 안에 지속가능한 학문 활동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현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지속성, 다양성, 자율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에 나타나는 한국학의 현지화 양상을 지속성, 다양성, 자율성 범주를 활용해 기술하였다.

투고일 2019. 12. 20.

심사일 2019. 01. 10.

게재 확정일 2019. 02. 21.

주제어(keyword) 해외한국학(overseas Korean studies), 한국학(Korean studies, Koreanology), 현지화(localization), 한국학의 현지화(localization of Korean studies), 씨앗형사업(seed project),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 한중연(AKS)

Abstracts

A study on localization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cussed on the achievement cases of 'AKS SEED Project'

Kim, Jin-ryang

This research aims analysis of the achievement cases of 'AKS SEED Project' to describe the feature of localization which appeared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 stud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four conclusions in this paper.

First, an agreement on the concept of '한국학/ Korean studies' is necessary to have a consistent discussion on various features, results, and prospects of world wide education and research about Korea. Second, in this paper, '해외한국학/overseas Korean studies' is re-defined as a new academic practice to develop new knowledge on Korea after re-interpretation and transforming of existing knowledges. Third, localization was suggested as a concept to describe the diverse feature of '해외한국학/overseas Korean studies'. Continuity, variety, and autonomy are three classes for description of the features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urth, the feature of localization of overseas Korean studies in the result cases of 'AKS SEED Project' was described in the frame of the three classes above.

All of these discussion aims to provide an idea for integration and evaluation of various overseas Korean studies in the world and to dedicate its development.